

서평 <가나안 성도. 교회밖 신앙>
읽은 양인가, 깨어있는 성도인가?

가나안 성도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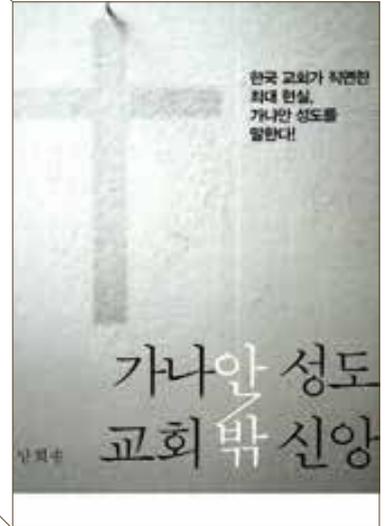
‘가나안 성도’라는 개념은 이제 공식적인 언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가 되는 이 개념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안 나가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조어라고 하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는 질문에 교회 안 나간다 하기도 그렇고 거짓말하기도 그래서 가나안교회 다닌다고 한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시대적인 현상으로 읽히기 시작했다고 저자는 꼭 짚어 이야기한다.

여담이지만 이러한 이들을 지칭하는데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다. 이 좋은 이름을 굳이 이렇게 써야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가나안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하신다는 분의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재치 있는 기독교식 이름 붙이기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의 시대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저자는 이것을 ‘제도권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현상’으로 정의하면서 ‘서구 교회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제도권 교회, 조직에 대한 반발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신앙생활의 영성이 존재해 왔으며, 소속 없는 신앙, 교회 밖 그리스도인등의 표현으로 이를 묘사해 왔다’고 덧붙인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이며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이다. 현재 굿미션네트워크 이사이자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장 및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장 등으로 섬기고 있다. 독일의 킬대학교(Th.M.)와 마르부르크대학교(Th.D.)에서 수학하였으며, 저서로는 『목회사회학, 현대 사회 속의 기독교회』,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등이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가나안 성도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제도권 교회에서의 이탈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회를 벗어났지만, 신앙마저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100만 가나안 성도를 이야기하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실시한 조사를 근거로 드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 중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약 10%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만 그리스도인의 10%인 100만 명이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10%는 제도권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맞으나 그 이탈이 의식적인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의식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지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앙적 열정을 잃고 바쁘거나 게을러서 교회에 안 나가는 이들까지도 가나안 성도의 범위에 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가나안의 주일

그러면 교회를 벗어난 이들의 신앙이 과연 가능할까? 이 책은 먼저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밝힌다. 주일 아침 광화문 스타벅스에서 나를 가졌던 '가나안 예배'의 풍경을 보여준다. 이 대목은 가나안을 남발한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도 놀란 기독교 단체 중견 책임자와의 대화가 이어진다. 모태 신앙인 그는 성실하게 교회에서 성장했고,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다. 더구나 꽤 오랫동안 그 단체의 간사로 섬겼다. 그런데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교회를 그만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런 교회에 다닐수록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가치에 끌려다니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이탈하거나 반대를 선언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주일 아침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에 가 있는 동안, 혼자 밖으로 나가 도넛과 커피 한 잔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 또한 그는 아직 교회에 남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오라고 권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가나안 논쟁: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나안 성도를 논하는데 있어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나안 성도에 대한 반응은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교회가 잘못된 것이 많아. 우리가 회개하고 변해야지... 그래도 이제 그만 방황하고 돌아와.”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성도, 그거 자꾸 정당화하면 안 돼. 조금만 힘들면 교회 밖으로 걷도는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이다. 저자는 가나안 성도를 교회쇼핑족, 교회난민, 영적 엘리트주의자, 영성 소비자 등과 같은 부류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 이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진지하다는 것이다.

이중 몇 가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지면 관계상 하나만 살펴보자. 이들은 교회난민인가 이다. 저자는 이들을 교회의 분류로 내쫓긴 자들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후부터이다. 이들은 다시 돌아올 양인가, 아니면 자립하여 살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인가 이다. 물론 이것은 책의 메시지에 대한 질문이다. 가나안 성도에 대한 연구나 저술의 목적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성도는 현재 조직화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버거워서 뛰쳐나온,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며 아멘만 이야기하는 이들과는 다른 사람들로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들을 결코 불쌍한 존재나, 잃어버린 양 수준이나, 교회를 떠난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측면은 이들이 떠난 이유를 살펴보며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빠지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가나안 성도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부류이다.

저자는 물론 전자이다. 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에 교회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돌아오라고만 한다면 오히려 반발만 사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자발적인 가나안’이 결국 ‘자발적 가나안’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나안 성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몇 차례 논쟁을 가진 적이 있다. 가나안 성도들이 스스로를 ‘영적 노숙자’ 또는 ‘영적 순례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이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떠날 때는 호기 있게 떠났지만 순례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때론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며 거리를 헤매지만 교회에서 자라난 배경이 있기에 고향을 그리워한다. 교회의 교리와 관례를 거부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려 하지만 안정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힘들 때도 있다. 끝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포스트모던의 신관을 가져보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인지, 교회의 문제인지 따지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든다. 그래서 이들이 이 순례의 길을 조금이라도 일찍 마무리하고, 그 순례의 끝에 교회를 다시 발견했으면 하는 것이다.

가나안 논쟁: 교회는 무엇인가

두 번째 논점은 교회론이다. 저자는 가나안 현상을 통해 교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가나안 성도를 통해 더 풍성하고 깊어진 교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교회론은 없고, 단지 교회 성장론만 있다고 자성을 촉구한다. 즉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없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에 대한 성장주의만 있다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는데 정작 나타난 것은 ‘교회’였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의 퇴행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를 한다. 교회, 에클레시아에 대한 것이다. 에클레시아는 케리그마(선포), 레이투르기아(예배), 디다케(교육), 코이노니아(교제), 디아코니아(봉사)의 기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조직론이 아니라 기능론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클레시아는 그런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 영속적으로 유지할 어떤 제도는 아니란 말이다. 역설적으로 보자면, 에클레시아란 이름을 달고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제도란 에클레시아에 가장 적대적인 장애물이 되고 만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로 들어온다. 제도의 존속과 치장에 힘쓸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됨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묻는다.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는 큰 건물에,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문제는 교회가 위에서 말한 역할들에서 떠나 건물을 세우고 유지하는데만 온 힘을 쏟는 경우들이다. 나아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사람이 모일만한 일들로 교회를 채우고 있는 현실이다.

그의 지적은 바로 이러한 면과 닿아 있다. 즉 이렇게 교회됨을 상실한 한국 교회에서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당연하고, ‘반신앙적 도발’이 아니라 ‘참신앙의 표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도전을 통해 한국 교회가 자기를 돌아보고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지적에는 머리가 끄덕여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허물어져버

린 교회에 남아 있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어쩌인가. 과연 한국 교회는 이처럼 부족하고 교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는가.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는 것이 정당하고 의로운 일인가.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에서 영화 ‘설국열차’가 생각났다. 영화를 본 후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모순덩어리 열차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고 두 아이만 살아남아서 눈덮힌 설국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서다. 그래서 과연 그 결말은 옳은가 하는 것이다. 아니 그것이 그들이 투쟁했던 바른 결말인가의 문제이다. 아마 이것은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한국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며, 동시에 그들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이다.

가나안 성도 현상은 분명 한국 교회에 던져진 도전이다. 이것을 한국 교회가 빚어낸 현상으로 볼 것인지, 세계적인 흐름 속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던 현상으로 볼 것인지는 뒤로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만들지 않는 교회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저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유치원 수준의 기독교가 아니라 성인용 기독교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소통하고, 생기를 나누어서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이 도전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싶다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